

## 제25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

참가분야	강의분야
------	------

제 목	<b>시니어 소방안전교육</b> [부제 : 건강박수와 피난 트롯송 배우는 화재대피요령]
-----	---

소 속	인천소방학교		
직 급	지방소방장	성명 [한자]	이 수 민 [李 受 玟]

# 교 안 요 약 서

발 표 자	소속	인천소방학교		직급	지방소방장	
	성명 (한자)	한글	이 수 민	생년월일		
		한자	李 受 玟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gogosing@korea.kr
발표제목	시니어 소방안전교육					
교수대상	과정명	시니어 소방안전교육		직급	지방소방장	
	특 성	● 노인대학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교수목표	● 노인 특성을 이해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잠재적 기능을 최대한 끌어내 스스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 ● 노인인지놀이 학습 활용 신나는 소방안전교육					
교수내용	● 신나는 피난트로트송 활용 화재대피요령 ● 자력대피 비상벨 역할 ● 자력대피 피난유도등 역할 ● 119안심콜 서비스 안내 및 가입방법					
교수매체	● 교재, PPT, 동영상 ● 컴퓨터,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 교 재

**시니어 소방안전교육**

**[건강박수 함께 피난트롯송 배우는  
화재대피요령]**

# 제1장 서론

## 1. 노인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이제 고령화는 선진국만의 변화가 아닌 전 세계적인 변화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UN에서는 사회의 고령화 정도를 기준으로 그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2%를 넘어섬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다. 2015년 총 인구(외국인 포함)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13.2%를 차지함으로써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목전에 다다랐다. 그리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2026년경에는 2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급격한 고령화의 파도를 맞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1864년에 세계에서 가장먼저 고령화 사회가 된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가 되는 데 126년,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이 24년 소요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압축적 고령화’라고 명명할 만하다. 게다가 이러한 압축적 고령화로 인하여 2050년에는 일본, 이탈리아 등 대표적인 고령국을 모두 제치고 전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최고령국(37.3%)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노인들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사고에

의한 사망은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되며, 수년간 사망의 외부요인은 사고(운수, 추락, 익사, 화재, 중독, 자살, 타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57.8명이다. 특히 60~69세는 87명, 70~79세는 163.8명, 80세 이상은 388.5명으로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2014년 화재로 인한 사상자 중 60세 이상이 24.7%(사망 42.2%, 부상 24%)를 차지한다. 또한 같은 기간 119구급대 이송인원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2.2%에 이른다. 이처럼 노인에게 많은 소방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제도→점검→교육→인프라’의 선순환적 구조가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 중간 고리로써 대국민 안전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재난발생의 하인리히법칙은 한 번의 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안전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으로 평상시 국민의 안전의식과 관심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의 사고 및 재난발생은 사회 환경, 인간의 과실, 불안정한 행위나 상태, 사고, 상해의 순서로 진행 되므로, 도미노 요인을 끊는 중재가 사고 및 재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대책이라고 버드(Bird)는 재해연쇄이론(새로운 도미노이론)에서 설명한다.

이처럼 안전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우선 노인 안전교육은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 안전교육 관련법은 각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중 일부를 의무 혹은 자율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은 없다. 또한 안전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교육과 산업장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노인을 고려한 체계적 안전교육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노인의 안

전관련 지식보급과 기술습득을 의무화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 교재·교구, 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전문 강사, 관리체계 등 인적·물적 인프라는 태부족하거나 부재 상태다.

우리나라 4대 소방안전체험관(서울 광나루, 서울 보라매, 대구, 전북)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노인은 1%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국민안전처, 2018).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는 2013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17.5%로 전국 평균 12.2%를 넘는 고령사회 수준에 이른데 반하여, 전북소방안전체험관에서 2014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노인은 고작 0.02%에 그치고 있다.

각 체험관 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화재나 지진, 풍수해 등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일반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방안전체험관은 노인이 다른 연령층과 함께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특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한 유일하게 노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경북소방학교의 ‘할매·할배소방안전교실’도 1일 5시간의 프로그램 중 중식(110분)과 노래건강교실(120분)을 제외하면, 70분 내에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자살충동 및 노인학대 대처요령까지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민간 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노인을 포함한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생활 등의 분야에 대해 방문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처의 일반적인 안전교육 매뉴얼을 자체 강사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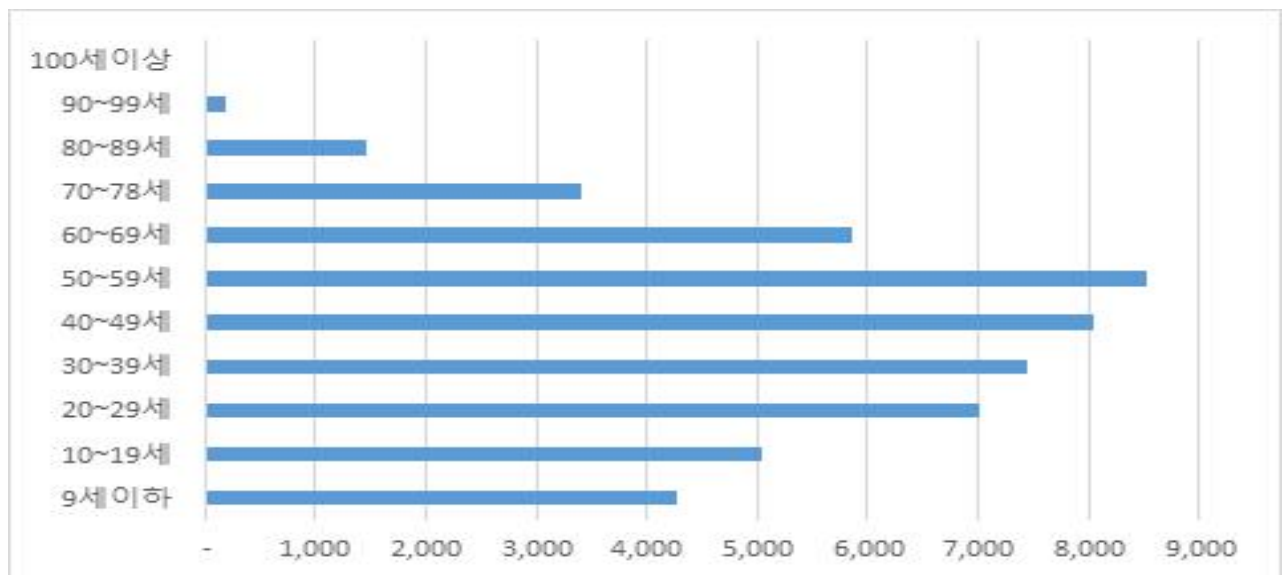
노인 안전교육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과 방법이 구성되어야 한다. 노년기는 인지능력의 변화와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활동(ADLs, Activities of DailyLiving)에 제한을 받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여 안전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한다. 또한 자신은 물론 친구나 가족 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이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환

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안전 지식과 실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학습이 필요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표준화된 안전교육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2. 19년 노인인구통계, 19년 화재 사망자 통계, 19년 소방안전교육 현황

### □ ' 19년 총 인구현황(51,629,512명)

연령	9세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이상
인구수	4,280	5,036	7,005	7,447	8,049	8,516	5,854	3,415	1,473	1,90	4
비중	8.3	9.8	13.6	14.4	15.6	16.5	11.3	6.6	2.9	0.4	0.01



### □ 전국 시군구 고령인구 구성비 상위 10순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229	25	16	8	10	5	5	5	1	31	18	11	15	14	22	23	18	2
초고령 시군구	93	0	4	1	2	1	-	-	-	3	10	5	10	10	17	18	12	0
비중	40.6	0.0	25.0	12.5	20.0	20.0	0.0	0.0	0.0	9.7	55.6	45.5	66.7	71.4	77.3	78.3	66.7	0.0

□ 전국 시군구 고령인구 구성비 상위 10순위

군명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경북 군위	경남 함천	전남 보성	전남 신안	경남 의령	경남 남해	경북 영덕	전남 함평
고령비율	40.0	39.7	38.6	37.8	37.0	36.3	36.0	36.0	35.6	35.2

□ 화재로 인한 사망자 통계

○ '19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 285명중 노인이 122명으로 42.5%

구분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사망자	253	306	345	369	285
65세이상	87	102	121	134	121
비중	34.4	33.3	35.1	36.3	42.5

※ 출처 : 국가화재정보통계(외국인 및 방화로 인한 사망자 포함)

□ 소방 안전교육 실시 현황

- 전체 970만명중 노인 23.8만명(2.6%)으로 학생(유아포함) 및 성인(96.1%)에 집중
- 사회복지시설 출장교육(2.2%), 교육기관 출장 및 야외 체험행사에 편중 (36.4%)



## 제2장 노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 노인 학습자의 특성

#### 가. 노년기 신체적 특성

노인은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근 질량과 근력 및 관절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보행 시 보장이 좁아지고, 보행속도는 느려지며 보장의 변이성이 증가한다. 또한 신경계의 변화는 자극 반응시간을 지연시키고 신경전도 속도를 감소시키며, 신경계의 기능을 저하시켜 균형 능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신체적 변화는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안전사고 고위험군 으로서의 노인의 신체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노인이 되면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육체 구성(body composition) 비율 중 지방 비율은 증가하고, 조직(tissue)은 감소하며, 근육 조직의 탄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노인은 동작의 속도와 유연성이 저하된다.

둘째, 기관계(organ system)의 변화가 일어난다. 근골격계, 근감각계, 호흡기, 심혈관계, 위장체계 등 대부분의 체계에서 기능의 저하가 진행된다. 근골격계의 약화는 노인의 낙상과 관련이 깊다.

셋째, 감각기능의 저하가 일어난다. 시각의 저하는 조명이 어두운 계단에서의 낙상에 영향을 미친다. 후각의 저하는 화재 등 사고의 빠른 감지를 어렵게 한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이 신경종말의 감소로 인해, 피부의 감각이 둔해지는 촉각의 저하다. 특히 손가락, 손바닥 등 말초계의 촉각

기능 저하가 다른 부위에 비하여 저하 정도가 강하다. 감각의 둔화는 통증을 느끼는 것도 약하게 만드는데, 이 때문에 노인은 화상을 늦게 알아차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피부는 뜨거운 물체에 닿아있으나 그 통증을 미리 감지하지 못해 이미 화상이 진행된 후에야 피부와 물체의 접촉을 떼고 조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은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고통을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노인이 고통을 축소하여 이야기하는 경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거나 경제적 부담이 염려스러워 실제의 고통을 축소하여 사고 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도 연관이 된다.

#### 나. 노년기 인지적 특성

첫째, 기억력이 변한다. 기억능력은 유아기에서 아동기에 걸쳐 급속히 증가하다가 그 후 차차 증가 속도가 줄어들며, 청년기의 어떤 시기에 정점에 달하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감퇴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기억 쇠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노년기 기억의 특징 중 하나는 최근 기억의 상실이 과거 기억의 상실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노년기에는 기계적 암기보다는 논리적 기억능력이 더 크게 감퇴하는 경향이 있다. 노년기에도 시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인 본 것에 대한 기억보다는 청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인 들은 것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된다. 또한 대부분 무의식적·습관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비진술기억 보다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의식적으로 재조합해서 학습하는 기억인 진술기억에서 노화로 인한 감퇴가 뚜렷이 나타난다. 끝으로 노년기에는 미래에 수행해야 할 행동을 계획, 조직하고 자기 검색하는 미래계획기억

혹은 조망기억이 매우 취약해진다.

둘째, 우울 경향이 증가한다. 다양한 스트레스나 생화학적 장애에서 유발되는 우울증으로 내적 비분 상태가 괴로움, 깊은 슬픔, 무관심, 무기력감, 초조인 기분 장애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자신의 건강을 나쁘게 인식하며 안녕감도 낮아 죽음이나 자살을 반복해 살인, 자살 사고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셋째, 신경 및 인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노인들은 반사 작용이 느려지고 온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저하되며 기억력과 지남력이 감퇴되고 주의 집중력이 약화된다. 또한 공간 지각력의 감퇴는 장애를 빠르게 피하고 빠른 운동 반응을 할 수 없게 만든다.

넷째, 학습능력은 유지된다. 노화가 진전되더라도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잠재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즉, 노년기에도 기본적인 학습에 필요한 정도의 능력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들도 충분히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다

## 2. 놀이의 특성

놀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하는데 필요하다.

우리는 놀이 경험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한다. 놀이는 우리가 생활하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리가 놀이에 몰입되어 있을 때 자유로움을 느끼며, 예측할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환경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놀이에서의 행동은 외적인 힘에 의해 제어되거나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특징적인 형태로 동기화된다. 삶에 대한 확인이 우리의 권한 안에 있다는 인식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놀이의 정의는 가

비(Garvey)나 벌린(Berlyne) 그리고 루빈(Rubin), 페인(Fein), 벤든(Vanden), 등 학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놀이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며, 과정 지향적이고, 내적 동기로 이루어지며, 비현실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긍정적 정서를 가진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놀이행동에 대한 특성으로써 레비(Levy)는 놀이를 놀이가 아닌 행동, 즉 비놀이 행동과 대비하여 도식화하였다.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현실감의 부재(suspension of reality), 내적 통제 신념(internal locus of control)으로 놀이의 특성을 규정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놀이의 ‘내적 동기’란 내적 활동에 몰입하려는 것으로 활동 내부에 기원을 두고 발생하며 내적 보상을 갖는 것이다. ‘현실감의 부재’는 현실적인 자아의 상실(자아의 망각)을 의미하며 잠시 환상적인 자아나 상상적인 자아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가작화(make-believe)의 형태를 통해 현실세계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회적 규칙이 전제되지 않는 현실적인 자아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내적 통제 신념’이란 놀이를 하는 동안 자신의 운명에 대해 자신이 얼마간의 책임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외부 영향력에 의해 사는 사람보다 인생전반에 만족할 수 있으며 여가나 일에 만족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 3. 놀이 특성과 놀이치료의 개념

노인의 놀이치료에 놀이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놀이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인 힘 때문이다. 이러한 치료적 힘으로 인해 놀이는 심리치료에 적극 활용되어 정서적 부적응 문제의 치료 및 정서적 자기통찰과 부적응을 예방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쉼퍼가 제시한 놀이의 치료적 요인을 각 놀이치료학과에서 중시하는 치료기법과 관련지어 노인에게 적용하여 분류하였다.

#### 가) 창조적 사고 (Creative Thinking) 요인

놀이는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격려한다. 놀이를 통해서 실제로 시도해 보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 해결법을 시도해 보고, 그 중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된다. 놀이 속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융통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융통성 있고 근본적인 놀이와 연관된 사고들은 실생활에서 사회적·감정적 문제들에 대처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하도록 돕는다.

놀이는 내적 욕구를 탐색하고 환경을 만족스럽게 터득하게 하는 동기화된 활동이다. 환경을 탐색하고 익숙해지며 마침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자아 존중감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놀이 활동은 실제 활동에 비해 실패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숙달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놀이 경험들은 힘과 통제력 그리고 환경을 통제했다는 느낌을 제공해 준다. 놀이는 또한 새로움, 다양함, 그리고 도전이며, 또 작업에 몰두하도록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나) 관계증진(Relationship Enhancement) 요인

놀이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은 놀이하는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자연과 주변 환경, 동물, 식물 등, 생활 환경과의 놀이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대인관계능력과 목적의식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 즐거운 놀이의 상호작용은 유대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이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며 나아가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은퇴 등으로 사회적인 노화를 경험하는 노인들은 자신을 비하하며 소외

감을 느낀다. 타인과의 교류가 부족하고 신체적인 접촉이 낮은 노인들에게 놀이는 자연스럽게 타인과 반응하고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즐거운 경험을 준다. 이를 통해 노인은 사회 속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소리를 모아 노래하고 손을 잡고 율동하며 팀을 이루어 게임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타인과 교류하게 된다.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가운데 느끼는 접촉과 미소를 포함하는 즐거운 상호작용도 애착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놀이를 통해 길러진 유쾌한 관계와 결속은 자신이 수용 받고 기대 받고 확신 받는다는 느낌, 즉 자아 실현감을 형성한다.

#### 다)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 요인

놀이에 수반되는 긍정적인 면은 두 가지 강력한 치료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행복감을 준다. 둘째, 즐거움을 통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강력한 해독제이다.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많을수록 우리는 놀이가 주는 피난처를 더 많이 원하게 된다. 놀이는 외적 요구와 의무 그리고 심각함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다.

놀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즐거운 정서를 통해 놀이를 하는 동안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 노인이 가족과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놀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행위이기 때문에 아동은 놀이를 하도록 자극할 필요가 없지만, 감각적인 기능이 노화된 노인들에게는 재미를 유도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하다. 교구나 환경 치료사의 역할 등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게임 등의 놀이를 통해 사회화를 유도한다. 놀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일을 수행할 때에도 적용되며, 이를 통해 자아통제가 강화된다. 게임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타인과의 정당한 경쟁과 상호 협력을 유도하는 유익이 있다.

#### 4. 노인 놀이치료 전문가 역할

노인놀이치료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끄는 열쇠는 노인놀이치료사의 역할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치료사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치료사의 노인들의 놀이참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치료사의 놀이준비와 태도 역할 여하에 따라 노인의 놀이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사와 노인과의 관계는 신뢰성이 기초가 된다.

놀이치료사는 인간 내면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능력을 갖추고, 치료사 자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려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놀이치료에서는 치료사의 인격적 성숙을 중요한 자질로 꼽고 있는데, 그것이 놀이치료에 반영되어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놀이치료사와의 안정적이고 수용적인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치료사의 자격요건으로는 인간심리의 역동적 관계와 진단, 인간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심리학적 배경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경험을 갖춰야한다. 치료사는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좋아하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며 노인의 잠재적 기능을 최대한 끌어내고 유지시키며 향상 시킬 수 있어야한다. 또한 치료사는 개개인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맞는 놀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 노인놀이치료사의 역할

역할이란 집단에서 개인의 행위 및 특성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노인놀이치료사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 하느냐는 노인놀이치료사가 수행하

여야할 역할행동, 그들에게 기대하는 행동 등을 의미한다. 모든 활동은 노인놀이치료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치료사는 연출가·놀이자·안내자·교수자·평가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연출가의 역할이란 치료사는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장치를 사용해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놀이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연출가가 되어야한다. 노인의 병과 장애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기법들을 선택하고, 놀이도구의 재료와 매체 선택에 있어서도 노인의 신체적 상태나 안전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노인이 안심하고 즐기며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사는 스스로 놀이를 즐기며 참여하는 놀이자의 역할을 하여야한다. 노인과 크레파스로 함께 작업해 그림을 완성해내는 조력자로서, 공을 서로 주고 받는 파트너로서, 손을 잡고 댄스를 하는 짝이 되기도 해야 한다. 노인의 활동을 칭찬하며 격려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참여하기도 한다. 치료사가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노인들과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놀이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다. 안내자의 역할이란 치료사가 노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정 활동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하며, 활동을 돕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노인에게 가르치는 일과 함께 정서적인 지지와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치료사는 노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서로 의견을 적절한 말로 이끌어내고 교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놀이를 통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수자의 역할은 놀이의 계획과 지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의 계획·조직·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치료사의 적절한 준비와 개입전략은 궁극적으로 놀이 활동에 노인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확장시켜 준다. 치료사는 노인의 놀이를 관찰하여 삶의 활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한다. 또한 노인의 개인적인 특성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사는 계속적으로 노인의 독자성을 촉진시켜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지만 때로는 노인들의 놀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등의 놀이의 방해자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료사는 평가자의 역할로서 특별히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나 병중에 있는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르치고 돌보는 책임 외에, 노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 자료를 가지고 보호자나 기관의 행정가들과 의견 교환을 하게 된다. 노인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지켜본 치료사의 적합한 평가는 노인의 치료나 케어 과정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놀이 중에 볼 수 있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도 중요한 관찰 자료가 되어 노인의 개인차를 인정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계획 및 지도를 가능하게 한다.

## 2) 노인놀이치료사 양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인력으로는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원예치료사, 웃음치료사, 레크리에이션치료사, 운동치료사, 건강관리사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민간단체에서 양성된 인력들로서 일정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치료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놀이치료는 노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특징에 대한 깊은 지식을 전제로 진행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노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기본적인 인간발달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지식조차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각 분야의 자격증만을 가진 채 치료사 또는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격증 수여 역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마다 자체적인 운영에 따라 발급되고 있어서 그 교육과 훈련 과정에 대한 검증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최근에는 노인 상담치료사, 노인운동지도사, 노인복지사, 노인간병사, 실버시터 등 노인과 관련된 각종 자격증 제도가 난무하고 있다. 가장 많이 통용되는 미술치료사 자격증만 보더라도 미술치료협회, 예술심리치료협회 같은 크고 작은 단체나 연구소 등이 있고, 대학마다 평생교육원등에서의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각의 기관들에서 미술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전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나라 전체에서 혹은 한 지역에서만이라도 통용되는 미술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실시와 함께 국가에서 자격증이 제공되는 인력 인프라로서 노인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호사가 양성되고 있지만 그 교육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인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과목만을 정해진 시간 안에 이수할 뿐 노인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접근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목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으로 말미암아 요보호 노인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놀이치료사의 양성이 시급하다. 노인놀이치료사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놀이치료사로서의 자질 이외에 그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노인에게 정신적·육체적인 서비스를 하는 자가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특정 상황에 특정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면 서비스를 받는 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전문성은 대체로 가치와 지식 그리고 기술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가치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아울러 노인놀이치료사 자신의 직업에 대한 천직 의식을 말한다. 지식은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노령화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구조는 물론 생태학과 건강학 그리고 심리학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 또는 기능은 이러한 가치와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노인들에게 놀이치료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숙련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노인놀이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지식이나 개념이외에도 실습을 통한 경험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론과 경험적 훈련, 이 두 가지가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되었을 때

한사람의 전문 노인놀이치료사가 될 수 있다. 전문성이 확보된 노인놀이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가치적 차원에서 노인놀이치료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

놀이치료사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인력의 풀이 넓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놀이치료사에 대한 임금이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시급하게 확립해야 한다. 노인놀이치료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 학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노인놀이치료사의 자격증 수여는 현행의 교직이수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인놀이치료와 관련된 학과목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수습기간을 거쳐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나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 또한 필요하다.

셋째,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놀이치료사의 자격증 관리와 재교육을 위한 제도를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현행의 민간차원의 자격증 관리제도는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최소한 국가 인증의 자격증관리와 그에 따른 사회적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양질의 노인놀이치료사를 양성할 수 있다.

## 제3장 놀이치료 반영된 소방안전교육 방안

### 1. 노인놀이치료의 영역

활동영역의 범위는 인간의 존재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특수 인구집단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의 형태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는 다양한 활동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전에 대상에게 적용이 가능하고 적합한 여러 종류의 활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대상에 따라 활동들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새로운 활동들을 고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노인놀이치료의 활동영역은 대단히 광범위하지만, 이 연구에서 활용되는 놀이영역은 음악·미술·언어·운동·게임·생활영역·전통놀이 등 7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영역별 놀이 치료의 특징과 그에 따른 효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음악영역

노인놀이치료에 있어서 음악영역은 치료적인 목적 즉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을 복원,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놀이치료사가 치료적인 환경 속에서 치료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이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악은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지각이나 신체기능의 상실을 접하게 되는 노인들에게 활력과 생기를 가져다준다. 음악을 활용한 놀이는 음악을 도구로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인 결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서 바람직한 삶으로 개선시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대개는 단

순한 감상에서부터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적극적인 음악활동까지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음악을 배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위해 음악을 도구로 혹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노인에게 있어서 음악은 현재의 고통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며 과거의 좋은 기억을 되살려 정신적인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름으로써 쌓여있던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고 우울한 마음을 감소시켜 기분을 전환시키기도 한다.

건강하게 성공적인 여가를 영위해가는 노인들에게 있어서도 음악은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된다. 음악을 접하고, 연주하고, 작곡하고, 작사하고, 율동 하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들을 통해, 노화로 인해 갖게 되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측면의 불균형을 조절시키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자신의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음악활동과 이로 인한 사회참여는 노년기의 삶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 갈 수 있게 한다.

## 2) 미술영역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이나 위기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또는 주장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비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인을 위한 미술활동은 의사의 표현과 소통의 또 다른 수단인 미술이라는 표현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 활동이다.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나 욕구를 상징적인 부호를 이용하여 내면으로부터 끌어내는작용을 한다. 때문에 미술에 대한 재능이나 취미와는 상관없이

비언어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을 통하여 노인들의 심리적·정서적 갈등과 질병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며,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적·생리적 기능의 문제들을 보완한다.

또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한 창의적인 작업으로 뇌 활성화를 유도하여 노인의 심리적 문제나 건강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을 완화하고, 치매나 우울증 등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노인은 집단 미술치료를 통하여 노년기의 고독과 소외 등에 대한 심리적 위안처를 찾을 수 있다.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함께 작업하면서 나의 의견을 조절하고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미술활동은 소근육, 대근육, 시각과 지각 활동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기, 칠하기, 만들기, 붙이기, 오리기 등의 미술활동을 통해 신체 재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노인 미술치료는 옛것을 기억하고 즐거움을 느끼며 과거의 아름다웠던 시절에 살기 원하는 노인심리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삶을 회상하거나 생활에서의 긍정적 체험, 주변 세계와의 연결고리, 남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들이 미술치료를 통하여 재구성 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것과 연결시켜 노인들의 주된 문제가 되는 외로움, 질병과 죽음 대한 공포 등에서 벗어나 정서적 활기와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와 기법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상실감이 커져가는 시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활동은 과정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과거에 비슷하게나

마 경험한 것이 좋으며 완성도가 큰 것이 효과적이다. 노인들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몰두할 수 있는 작업거리를 제공하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완성된 작품은 작품의 수준을 떠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의사소통을 하는 통로가 되며, 자신의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을 되찾는 계기가 된다.

### 3) 운동영역

노인에게 있어서 율동을 포함한 운동 활동은 노화되어가는 신체의 저하를 막고 소외감, 우울,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을 감소시키며 삶을 윤택하게 하여 자아통합과 자기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인 감각을 회복·향상시키고 단체 내에서의 움직임 을 통한 지지, 수용,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체력의 저하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신체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규칙적인 활동을 통하여 체력저하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더 나아가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은 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음악에 맞추어 손뼉을 치며 어깨를 들썩이거나, 흥겨운 노래 가락에 몸을 실어 옆 사람과 함께 포크댄스를 할 때마다 근육이 이완되며 감정의 이완도 함께 일어난다. 율동을 통한 노인상호간의 신체적인 접촉은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보듯이 노인의 외로움이나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허탈감이나 무력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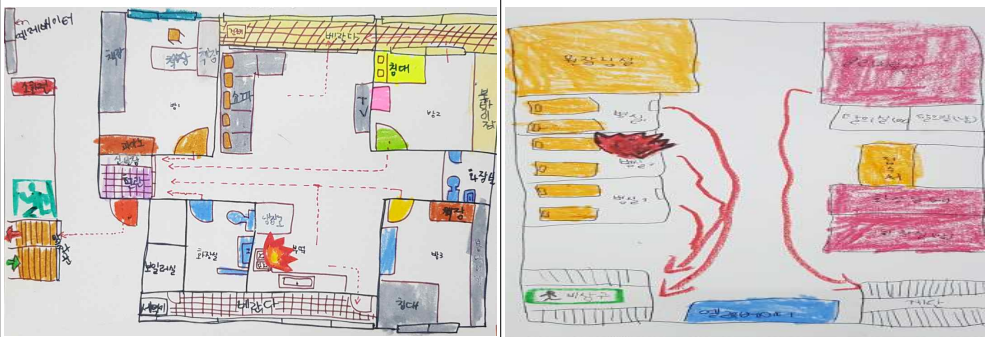
여기서 율동이라 함은 음악에 맞추어 걷기와 손목·발꿈치·어깨 등 신체 각 부위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므로 율동의 수준을 스트레칭이나 자세교정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신체의 작은 부분부터 각각 움직여 몸으



로써 나빠진 관절을 조금씩 부드럽게 하고 근육의 유연성이나 힘을 기를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또 흉곽을 확장시키는 운동은 폐활량을 늘리고 호흡기와 순환기의 활동을 개선시켜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도 음악과 함께 단순한 움직임 시도해본다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춤 동작을 잘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어깨를 들썩일 때마다 대뇌에 좋은 자극이 된다

## 2. 노인을 위한 소방안전교육프로그램(미술영역과 음악영역)

### 1) 미술영역(피난대피도) 그리기

단계	학습과제	학습활동		학습자료	지도상의 유의점
		교수	학습자		
전개 (40분)	노인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년기 신체적 특성 이해</li> <li>노년기 인지적 특성 이해</li> <li>노인교육의 원리</li> </ul>	청취	PC, 프로젝트	인격 존중 언어는 간단하고 정확히 전달한다
	노인 놀이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놀이치료 영역과 효과 소개</li> <li>노인놀이치료 미술영역 효과 소개</li> </ul>	청취	PC, 프로젝트	외국사례 안내
	피난대피도 그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생활시설 피난시설 소개</li> <li>피난대피도 그리기</li> </ul>	청취 응답	PC, 프로젝트	피난대피도 사례 보여주기 도구사용의 유의점
피난대피도 작성					

2)음악영역과 운동영역(피난트로트송 활용 건강박수)

단계	학습 과제	학습활동		학습 자료	지도상의 유의점
		교 수	학습자		
도입 (5분)	오프닝 및 전시학습 정리	○ 피난대피도 그리기 참여 안전 확보에 대한 성취감 격려	정청 응답	PC, 프로 젝트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자아 정체감 형성
전개 (15분)	화재 대피 교육	○ 건강박수(운동역역) 피난트롯송 (음악영역) 화재대피요령 강의 ○ 119 안심콜 안내	참여 응답	PC, 프로 젝트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color: purple;">건 강 박 수</h1>  </div>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blue; padding: 5px; margin-top: 10px; display: inline-block;"> <b>119생활안전 트로트</b> </div>					
					

### 3. 노인 놀이치료의 효과

노인 생활에 있어서 놀이 활동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치유적 기능으로 인하여 다양한 노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물론 치료대상과 치료방향 그리고 치료목표에 따라 강조하는 점이 다를 수 있지만, 노인놀이치료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기대한다.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증진을 들 수 있다. 적절하고 기분 좋은 운동은 긴장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신체의 약화와 신체의 노화를 막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지각이나 신체적으로 무기력하고 노쇠해지는 노인들에게 활력과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한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의 장애를 극복하고 남아있는 기능을 향상시킨다. 일상의 활동능력을 활성화하고 점진적인 재활 기회를 가진다. 아울러 놀이를 위한 연습과정에서 신체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신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돕는다. 또한 노인성 정신장애를 완화하거나 회복한다. 놀이는 보다 흥미롭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노인들의 정신기능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억력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며, 기초적인 지각활동으로 인지기능의 회복과 집중력 향상의 치료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상호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성의 증진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에게 놀이를 통해 집단생활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더불어 타인을 수용하고 환경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놀이 활동의 대부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과 자아 존중감, 자아 신뢰감, 자아 책임감 등 태도를 증진시킨다. 이미 현실사회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사라져 버렸지만, 놀이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킨다. 그에

따라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사회로부터의 이탈로 인해 상실한 대인관계를 회복한다.

셋째, 창조적인 기회 제공의 효과를 가져 온다. 놀이를 통해 노인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 습득된 기술이나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노인 시설에서 접할 수 있는 놀이치료의 영역별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주체적인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여 남아있는 잠재력을 일깨우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창조적인 충동을 느끼고 주체적인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놀이 활동을 통하여 다른 분야의 지식을 얻어 생활 속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넷째는 정서적인 행복의 증진으로 상호적이며 육체적이고 창조적인 놀이 프로그램들은 노인들에게 행복감을 맛보게 한다. 우정을 증진시키고 소외를 극복하여 결과적으로 외로움과 우울을 극복하는 역할을 제공한다. 억제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질병·문제들을 잊어버리고 정서적인 정화를 경험하게 한다. 회상을 통한 놀이로 기억력을 유지, 복원하는데도 대단히 효과적이다. 지나온 자신의 삶을 수용하며 자아실현을 이룬다. 특히 놀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즐거움이 창조됨으로써 남아있는 삶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넷째, 현실생활에 적응력을 향상시킨다. 놀이의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놀이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현실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만족감은 현실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자연스럽게 강화한다. 나아가 놀이를 통한 연습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의 활동 동작을 익숙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제4장 결 론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가속화 진입으로 매년 노인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만을 위한 특성화된 소방안전교육 자료나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놀이의 즐거움과 반복적인 활동으로 기억력을 자극하여 인지기능의 회복과 집중력을 향상해 안전사고 발생 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데 새로운 기술이나 어려운 학습이 아닌 놀이치료(음악치료, 운동치료, 미술치료)에 소방안전교육 교재 및 기자재를 만들어 보았다. 놀이치료를 더한 소방안전교육은 어려운 소방안전교육이 아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공간에서 흥미와 반복적 학습함으로써 개인의 안전은 물론 함께 연대하면서 사회적인 공감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놀이치료와 함께한 소방안전교육은

첫째, 음악치료를 통한 소방안전교육은 어르신들의 우울했던 심리적인 상태가 밝아질 것이고 소외와 외로움 등 적응하기 힘든 현실로 인해 주어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래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미술영역이나 운동역역을 더한 소방안전교육은 노화로 저하되어가는 신체적인 능력과 기억력, 인지적인 기능을 유지하여 화재안전사고 예방과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자아 책임감 및 대한민국 소방안전교육담당자에 대한 신뢰와 놀이치료전문성을 가진 교육담당자도 행복감을 느끼며 우리사회는 안전하고 건강한 어르신이 있어 행복한 나라가 될 것 이라고 확신한다.